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7면	도·도의회·경제계 강릉 상권 활성화 한마음	1
강원도민일보	02면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산불피해 극복 응원물결 넘실	1
강원도민일보		강원도의회, 강릉 산불 피해 지원 플리마켓 참여 복구 힘모...	2
강원도민일보		강원도의회, 강릉 산불 피해 지원 플리마켓 참여 복구 힘모...	3
연합뉴스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강릉산불 피해극복 플리마켓 열...	4
연합뉴스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강릉산불 피해극복 플리마켓 열...	5
CBS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강릉서 산불피해 극복 플리마켓 ...	6
CBS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강릉서 산불피해 극복 플리마켓 ...	7
강원도민일보	25면	특자도 성공 염원 담은 질주... 건강·환경 '두마리 토끼'	8
강원도민일보	25면	각 기관 단체장 ESG 실천 등 다짐	9
강원도민일보	03면	도 정치권 조직강화... 여 '청년 역할 모색' 야 '민생 정책 발...	10
강원타임즈	온라인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본격 착공	11
강원도민일보	02면	강릉 2청사 예산 도의회 예결위서 기사회생	12
江原日報	01면	'전세사기꾼' 망상1지구 몰아주기·쪼개기 특혜 의혹	13
江原日報	02면	김진태 지사 긴급 감사 지시 ... 최 前 지사 향하나	14
江原日報	02면	이철규 의원 ‘유력정치인 배후설’ 제기 논란 점화	15
江原日報	02면	망상지구 사업자 연내 교체 전망	16
江原日報	06면	여야 전세사기 대책 입법 공감대	16
江原日報	06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16
江原日報	07면	도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	17
江原日報	14면	망상1지구 '제2의 대장동' 위기 제동	17
강원도민일보	15면	평창군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	18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제21회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군 이장한...	18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미탄면체육대회	19
江原日報	10면	춘천 서면 박사마을 3년 새 박사 34명 추가 총 198명	19
江原日報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찾아가는 정책 세미나’ 성황	20
강원도민일보	20면	[월요마당]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불조성 통한 성공 ...	21

江原日報	21면	[동정]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 김희철 · 양숙희(...	22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김희철 도의원	22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김희철.양숙희 도의...	22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원제용 강원도의원	22
강원도민일보	02면	오늘 도지사 · 시장 · 군수 원팀회의 '9년 만에 부활'	23
강원도민일보	04면	전교생 3명 모두 6학년...통폐합 위기 내몰린 학교 32곳	24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도 · 시 · 군 주요사업 '정부 국도 · 국지도 건설' 반영 총력	24
江原日報	21면	道 서울서 데이터센터 기업유치설명회	25
東亞日報	16A	원주 시민단체들, 아카데미극장 철거 강행에 반발	26
江原日報	16면	철원~포천 고속도 조기 건설 요구 확산	27
강원도민일보	05면	'화마 도사린 강원' 강릉산불 이후 발생한 화재만 49건	28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규제 완화 올인 빈손 우려	29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가 우선	30
江原日報	19면	[사설] 아파트 외지인 매입 급감, 투기 잡고 시장 살려야	31
江原日報	19면	[사설]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하면 끝인가	32



◇강원도는 지난 22, 23일 이틀간 강릉 월화거리에서 강릉지역 소상공인 51개 업체와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릉 산불 피해 극복 응원 플리마켓을 개최했다.

도·도의회·경제계 강릉 상권 활성화 한마음

산불피해 극복 응원 플리마켓
관광 홍보·소비 촉진 캠페인

강릉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강원 경제인들이 뭉쳤다.

강원도는 지난 22, 23일 이틀간 강릉 월화거리에서 강릉지역 소상공인 51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강릉 산불 피해 극복 응원 플리마켓을 개최했다.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함께하자(場)'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강릉관광을 홍보하고 소비촉진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첫날인 22일에는 김진태 지

사와 권혁열(강릉) 도의장,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이선희(사)강원유통업협회장,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회장, 강원발전경제인협회 강릉지회 회원 등 50여명이 대거 참여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플리마켓 현장을 둘러본 뒤 상인들을 격려하고 상품을 구매했다. 이어 100개의 커피박 화분에 희망메시지를 담은 편백나무를 심어 산불지역에 기부하는 '희망화분 기부 이벤트'에도 참가했다.

김 지사는 "이번 플리마켓은 산불 피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이재민 돕

기 성금 모금, 희망나무 기부까지 진행, 이재민에 대한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담았다"면서 "동참한 방문객과 강릉시민,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앙과 성남시장에서 강릉 관광 홍보 및 소비촉진 캠페인도 함께했다.

23일까지 이어진 이번 플리마켓에서는 강릉 여행 홍보 부스 운영, 직접 만든 생필품 보내기, 기부자 선물 쿠폰 이벤트, 구매자 희망화분 기부 이벤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산불 피해 돕기 모금함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강원도민일보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산불피해 극복 응원물결 넘실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2면



강릉 대형산불

도·강릉시 월화거리 플리마켓
지역 소상공인 51개 업체 참여
성금 모금·희망나무 기부 호응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병행



최근 발생한 산불피해로 위축된 강릉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의장,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 22일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찾아 강릉 관광 홍보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강원도가 최근 발생한 산불피해로 지역 상권이 위축된 강릉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활성화와 이재민 돕기 성금모금, 희망나무 기부까지 이어지는 플리마켓과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이 나갔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지난 22~23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함께하자(場)'를 슬로건으로

강릉산불 피해 극복 응원 플리마켓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관광객과 시민 등 수많은 인파

가 찾아 응원 물결에 동참했다.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51개 업체는 디저트·간식류, 꼬막비빔밥 등로컬 가공식품류, 수제약세리류 등을 판

매하고 강릉 여행 홍보 부스 운영, 직접 만든 생필품 보내기, 기부자 선물 쿠폰 이벤트 등을 펼쳤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산불피해 돕기 모금함을 운영하고 이를 간 기부자 100명에게 커피박 화분에 편백나무를 심고 기부하는 희망화분 이벤트도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가 중단된 플리마켓 참여업체들도 이재민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성금으로 기부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행사 첫날 플리마켓을 방문해 참여 상인을 응원하며 상품을 구매했고 희망화분에 편백나무를 직접 심어 산불 피해 지역에 식재할 수 있도록 강릉시에 전달했다.

이어 중앙·성남시장에서 강릉 관광 홍보 및 소비촉진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플리마켓은 산불피해 강릉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 희망나무기부까지 이어지는 행사로 이재민에 대한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담았다"며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플리마켓 행사에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혁열 의장은 강릉산불 여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관광·숙박·음식업소 소상공인을 위해 관광객들에게 홍보 전단지 등을 나눠주며 제방문을 호소했다.

권혁열 의장은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석·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3일 (일)
정치

강원도의회, 강릉 산불 피해 지원 플리마켓 참여 복구 힘모아

이설화



▲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등과 지난 22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개최된 플리마켓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함께하장(場)’ 행사에 참여해 강릉 산불 피해복구의 의미를 더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가 강릉 산불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 지원에 나섰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22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개최된 플리마켓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함께하장(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엔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등 강원 정치, 경제계가 참석해 강릉 산불 피해복구의 의미를 더했다.

권 의장은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광객 등에 강릉 여행 홍보 책자를 나눠주며 홍보에 나섰다.

권 의장은 “산불 피해지역 관광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연결돼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강릉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달라”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3일 (일)
정치



▲ 강원도의의회(의장 권혁열)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등과 지난 22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개최된 플리마켓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함께하장(場)’ 행사에 참여해 강릉 산불 피해복구의 의미를 더했다. [강원도의의회 제공]

도의회는 강릉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짜장차(대표 오종현)’를 가동해 이재민,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에게 자장면을 대접했다. 또, 도의원들은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lofi@kado.net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강릉산불 피해극복 플리마켓 열려

소상공인 51개 업체 참여... "경제도 살리고 이재민도 응원"



판매 수익금 산불 피해 성금으로 기부해요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최근 발생한 강릉산불로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이 22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열리고 있다.

2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행사 기간 플리마켓 참여업체들도 자발적으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산불 피해 성금으로 기부한다. 2023.4.22 yoo21@yna.co.kr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최근 발생한 강릉산불로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이 강릉 월화거리에서 열렸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함께하장(場)'을 슬로건으로 강릉산불 피해 극복 응원 플리마켓을 2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

이번 플리마켓에는 디저트, 간식류, 꼬막비빔밥, 버섯, 식혜 등 지역 가공식품류, 수제 액세서리류 등 강릉지역 소상공인 51개 업체가 참여했다.

강릉 여행 홍보 부스 운영, 직접 만든 생필품 보내기, 기부자 선물 쿠폰 이벤트, 구매자.기부자 희망화분 기부 이벤트 등을 펼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산불 피해 돕기 모금함도 운영한다.



강릉 산불의 처참한 흔적

(강릉=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2일 강원 강릉시 안현동의 산림과 펜션에 전날 대형 산불의 흔적이 처참하게 남아 있다. 2023.4.12 yangdoo@yna.co.kr

희망화분은 매일 구매.기부자 선착순 50여명에게 100개의 커피박(커피 찌꺼기) 화분을 제공해 희망 메시지를 담은 화분에 편백을 심고 기부하는 이벤트다.

이 100그루의 편백은 산불 피해지역에 식재한다.

또한 행사 기간 플리마켓 참여업체들도 자발적으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산불 피해 성금으로 기부한다.

오모(45.강릉)씨는 "이런 뜻깊은 플리마켓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물건도 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재민도 응원할 수 있어 오늘 하루 잘 보냈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강원도의의회 의장도 이날 행사장을 방문해 플리마켓 상인을 격려하며 상품을 구매하고, 희망화분에 편백을 직접 심어 산불 피해 지역에 심도록 강릉시에 전달했다.



CBS

2023년 04월 22일 (토)
강원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강릉서 산불피해 극복 플리마켓 개최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핵심요약

강릉지역 소상공인 51개 업체 참여
판매 수익금 일부 성금으로 기부



강원도와 강릉시는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함께하장(場)'이라는 슬로건으로 강릉 산불 피해 극복 응원 플리마켓을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한다. 22일 오후 행사장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전영래 기자지난 11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위축된 강릉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응원 행사가 강릉 월화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희망을 사고 감동을 팔고 함께하장(場)'이라는 슬로건으로 강릉 산불 피해 극복 응원 플리마켓을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한다.

플리마켓에는 디저트와 간식류를 비롯해 꼬막비빔밥, 버섯, 식혜 등 로컬가공식품류, 수제약 세서리류 등 강릉지역 소상공인 51개 업체 참여한다. 플리마켓 기간 동안 강릉 여행 홍보 부스 운영, 직접 만든 생필품 보내기, 기부자 선물쿠폰 이벤트, 구매자(기부자) 희망화분 기부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

CBS

2023년 04월 22일 (토)

강원



강릉시 경포 일원 펜션 밀집지역과 산림에 대형 산불의 흔적이 처참하게 남아 있다. 강릉=황진환 기자특히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산불피해 돕기 모금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희망화분 이벤트도 실시해 매일 구매(기부)자 선착순 50여 명에게 100개의 커피박(커피찌꺼기) 화분을 제공한다. 희망메세지를 담은 화분에 편백나무를 심고 기부하는 이벤트로, 향후 100그루의 편백나무가 산불 피해지역에 식재된다.

행사기간 동안 플리마켓 참여업체들도 자발적으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산불피해 돕기 성금으로 기부한다.

김진태 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강원도의의회 의장 등은 이날 행사장을 방문해 플리마켓 상인을 격려하며 상품을 구매했다. 이와 함께 희망화분에 편백나무를 직접 심어 산불 피해 지역에 식재될 수 있도록 강릉시에 전달하는 한편 중앙·성남시장에서 강릉 관광 홍보와 소비촉진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플리마켓은 산불피해 강릉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 희망나무 기부까지 이어지는 행사"라며 "이재민에 대한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담은 만큼 피해지역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기타 아주경제, 이뉴스투데이 등 15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특집 25면

특자도 성공 염원 담은 질주... 건강·환경 ‘두마리 토끼’

2023 강원자전거대행진

도내 4개 시·군 2000여명 참가
나들이·푸짐한 경품 ‘일석이조’
환경·에너지 인식개선 등 호평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기원하고 지구온난화 극복 및 ESG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2023 강원자전거대행진’이 지난 22일 도내 4개 시·군에서 2000여 명의 도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자전거대행진은 순위경쟁에서 벗어나 강원도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안전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어 강원도의 대표 자전거 타기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2일 춘천, 원주, 속초, 정선 등 4개 시·군에서 지역별로 마련돼 자전거도로는 누비며 주말나들이와 함께 풍성한 경품을 챙겨가는 일석이조의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강원도민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건강증진은 물론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바람직한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어느 해 보다 뜻깊은 행사로 마련됐다.

자전거대행진 춘천행사에 참여한 지현구(64)씨는 “오늘 미세먼지도 적고



지난 22일 춘천 볼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 강원자전거대행진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허영·노영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이 출발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호

시원한 바람도 불어서 자전거 타기에 아주 좋은 날이다. 경품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며 “특별자치도 출범 때 실효성 있는 법안도 열려 마련돼 강원도민이 전부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 박종현(28)씨는 “속도 경쟁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경치를 즐겼다”며 “평소에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탄소중립을 위해 생활자전거를

일상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볼내체육관에서 열린 춘천대회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허영·노영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박기영·양숙희·임미선·이승진 도의원, 김보건·김지숙·

박남수·나유경 시의원, 양희구 강원도 체육회장, 이강균 춘천시체육회장, 김용주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기동도 건설교통국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우준식 신한은행 강원본부장, 이덕수 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학장, 장미영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지회 부회장, 정연산 강원도민일보 부설 국

리더아카데미 춘천권 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또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과 함께 자전거 등의 푸짐한 경품이 제공됐다.

한편 철원, 고성(이상 6월)을 비롯해 동해, 홍천(이상 9월), 횡성(10월 14일), 태백, 삼척, 영월, 평창, 화천, 인제, 양양(이상 10월), 양구(미정)는 추후 열릴 예정이다. 심예성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특집 25면



지난 22일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강원자전거대행진에서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진태 도지사,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이 출발을 알리는 시총을 하고 있다. 김경호

각 기관 단체장 ESG 실천 등 다짐

◇...강원자전거대행진에 참석한 각 기관 단체장들이 지구온난화 극복 및 ESG 실천을 다짐. 김진태 지사는 “도민 모두 자전거를 타고 탄소중립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강조. 이기찬 부의장은 “자전거처럼 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균형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소망. 신경호 교육감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아이들의 학력과 인성을 함께 키우겠다”고 선언. 허영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고 노용호 국회의원은 “행복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 육동한 시장은 “탄소제로시티를 추구하는 춘천을 모두 다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소망. 권주상 부의장은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고 주말엔 여유를 즐기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김종석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내일을 다함께 맞이하자”고 선언.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3면



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아카데미(원장 유호규)가 지난 21일 춘천 도당사에서 제2회 청년아카데미 특강을 열고 내년 총선의 청년 역할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곽문근)는 지난 22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발대식을 갖고 민생 정책 발걸음을 약속했다.

민주당 제공

도 정치권 조직강화... 여 '청년 역할 모색' 야 '민생 정책 발걸음'

도내 여야 정치권은 주말을 이용, 청년 아카데미와 민생위원회 개최하는 등 조직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아카데미(원장 유호규)는 지난 21일 도당사에서 제2회 청년아카데미 특강을 갖고 내년 총선의 청년 역할을 모색했다. 유호규 원장은 "강원도 전역의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을 해달라"고 했다.

이어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특강을 했으며 청년당원 50여명이 참

석해 총선 승리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곽문근)는 지난 22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발대식을 갖고 민생 정책 발걸음을 약속했다.

이날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전국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은 '을지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곽문근 도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지역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설화 lofi@kado.net

강원타임즈

2023년 04월 23일 (일)
사회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본격 착공

2023년 4월25착공, 총사업비 870억원, 250병상 규모 이전 신축



【강원타임즈】 김장희 기자 =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이 2023년 4월25일 착공식을 개최해 강원도 영동남부권역 미충족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5년 6월 준공한다.

강원도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Build-To-Lease) 방식으로 2019년 12월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수립 및 고시를 했으며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로 2021년 11월 삼척한마음의료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최종 인허가 절차인 2022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주요시설로 지하 1층은 대강당, 세미나실, 장례식장 및 지하주차장, 지상 1층 외래진료부, 응급부, 건강검진센터, 영상의학부 및 행정실, 지상 2층은 수술실, 인공신장실, 분만실 및 집중치료실이 설치될 계획이며, 지상 3층은 음압격리병동, 호스피스병동, 재활치료실, 지상 4층과 5층은 표준병동을 조성한다.

이에 착공식은 삼척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사업부지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박상수 삼척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다.

아울러 식전 행사는 사물놀이 공연과 각종 보건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폭넓은 확대로 도민 모두가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강원권 최고의 공공의료시설로서 의미있는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강원도민일보

강릉 2청사 예산 도의회 예결위서 기사회생

5억600만원 삭감된 19억7300만원
기획조정실 기관공통경비로 재편성
박정희 공관 보수비용 등 전액 삭감

속보=강원도청 제2청사 예산(본지 4월21일자 4면)이 강원도의회 본심의
를 통과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호)는 지난 21일 본예산
대비 5321억원 (7%) 증가한 8조553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조정규모
는 46억1976만원이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강원도청
강릉제2청사예산은 기획조정실 기관
공통경비로 재편성했다. 당초 편성액
(24억7900만원)에서 5억600만원을
삭감한 19억7300만원 규모다. 삭감은
버스임차비, 관사 운영비 등에서 일정
부분 이뤄졌다. 강정호 위원장은 예산

을 의결하며 “2청사에 근무하게 될 분
들의 처우와 불편사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강원FC의 자체 경쟁력 강화
를 주문하며 추경에 올라온 운영비 20
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또, 추경
21억원 중 6억900만원을 삭감한 시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는 올해 정리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다.

‘방문객저조’ 등이 지적된 박정희 전
대통령 양구 사단장 공관은 보수비 1억
5000만원을, 보조금 정산이 제때 이뤄
지지 않은 강원국제모터페스타사업은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2면

개최지원비 1억4500만원을 전액 삭감
했다.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비가 대폭 늘었다. 특위는 집행부가 편
성한 추경(6억3000만원)에 9억2000
만원 증액한 15억5000만원을 추경으
로 편성했다.

진중호(양양) 의원은 지난 20일 특
위 문화관광국 질의에서 “양양공항은
유류비가 김포공항보다 7%비싸고, 지
상조업비가 평균 15%비싼 등 연간 65
억의 추가비용이 드는 곳”이라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보행자 연결로 조성비 2억
원, 연안통발 어업 미끼지원비 1억원
등 증액은 총 43개 항목에서 이뤄졌다.

이설화 lofi@kado.net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1면

江原日報

‘전세사기꾼’ 망상지구 몰아주기·쪼개기 특혜 의혹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원도, 고강도 감사 착수

속보=‘인천 전세사기꾼’ 남모(62·구속중)씨가 2017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본보 지난 20일자 1·4면, 21일자 온라인 보도)에서 ‘사업 몰아주기’와 ‘쪼개기’ 정황이 포착됐다. 남씨가 망상사업지구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부지 확보 면적이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 전체 면적 축소 및 사업지구 분할이 이뤄진데다 경쟁업체가 있었음에도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남씨가 사실상 단독 협상을 벌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6·7·14면

■경쟁자 있었지만 단독 협상=강원도 등에 따르면 2016년 9월 동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외국계 법인이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강원도와 경자청은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국내외 4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혔고 2017년 7월 남씨의 건설사와 외국계 투자자 등 2곳이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원도와 경자청은 7월10일 남씨의 건설사, 7월27일에는 외국계 자본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벌인다. 그러나 강원도와 경자청은 남씨측과 7월17일에 당시 골프장 조성 사업이 중단돼 경매가 진행 중인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낙찰받을 경우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국계 투자자의 제안서 심사가 이뤄지기 전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모 절차도 없이 사업자가 선정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씨는 9월4일 망상지구의 부지를 143억원에 낙찰받는다. 이어 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가 2018년 1월 망상지구내 토지 1.8㎢(54만5,000평)를 확보한다.

■사업 쪼개기 특혜 의혹=동해이씨티는 당시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는 민간기업이 개

남씨 사업자 선정 과정 논란

경쟁자 있었음에도 단독 협상

부지 확보율 기준에 못미치자

사업 면적 축소·분할 통해 지정

최 전 지사 “법 절차 따랐다”

발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사업지구의 토지 50%를 확보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망상지구의 사업 면적은 6.39㎢로 동해이씨티가 확보한 부지는 28%에 불과했다. 이에 경자청은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해 10월 산자부와 경자청은 망상지구 개발 면적을 3.91㎢로 축소한다. 그러나 동해이씨티의 비중은 46%로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경자청은 다시 망상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한다. 동해이씨티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을 확보, 기준을 충족하게 됐고 2018

년 11월 사업자로 최종 지정된다.

■의혹 확산…최 전 지사측 강력 반발=정자권과 지역사회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재석(동해)도 의원은 “동해이씨티가 확보한 54만 평이 원래 경매 유찰로 가치가 100억 원 아래로 떨어져 경매가 중단된 상황에서 (동해이씨티측이) 143억원에 낙찰받았다. 사업자가 된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역시 남씨가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자로 지정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겠다고 발표했다. 부지 취득부터 사업자 선정, 사업 축소 및 분할 과정 전반과 당시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시사한 것이다.

한편 최문순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주당 도당을 통해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 내 사업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법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최기영·정윤호기자

江原日報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2면

김진태 지사 긴급 감사 지시 ... 최 前 지사 향하나

인천 전세사가꾼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도 “선정 과정 누가 관여했나 짚어야” 5월 중 감사 결과 발표
핵심인물 조사 불가·실체 파악 한계 정치권 혼란 부추길 수도

속보=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동해 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본보 지난 20일자 1·4면, 21일자 온라인 보도)에 대한 긴급 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감사위원회의 갑갑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는 ‘전임 도정을 향한 정치감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감사 결과는 5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지역정치권 등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도는 지난 21일 속칭 ‘인천 전세사기꾼’ 남모(62·구속 중)씨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권 획득 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자 지정은 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역량과 경험의 부족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킨 회사가 사업을 맡게 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짚을 계획이다.

감사계획을 발표한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실한 회사가 능력 있는 회사로 판단돼 최종 선정이 되었는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당시 실무 검토 내용들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누가 관여를 했는지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 준수 여부, 서류는 정확했는지, 공모도 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배경 등을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첫 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한 후 최문순 전 지사의 방침에 따라 ‘선(先) 토지 매입 후(後) 개발시행’으로 계획이 바뀌었고 이후 망상지구내 토지를 낙찰받은 남씨의 업체가 새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당시 최 전 지사의 결정 배



◇동해시 망상동 일원 망상지구 전경.

경 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단, 최 전 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은 무관하다고 강하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사가 실제적인 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혼란만 부추길 수도 있다. 강원도는 이

번 감사의 핵심인물을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신의 당시 본부장, 망상사업부장 등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청장은 현재 타 지자체 산하기관에 근무 중이며 본부장은 투병생활 중 숨졌다. 망상사업부장도 지난해 말 퇴직

했다.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고 당시 실무급의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정감사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실히 감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정윤호기자**

江原日報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2면

이철규 의원 ‘유력정치인 배후설’ 제기 논란 점화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사무총장이 인천 전세사기와 동해 망상지구 사업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과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

지사는 긴급 감사를 지시했고 당시 최문순 전 지사는 전세사기 사건과 망상지구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즉각 반박하며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인천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빌라 사기범을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게 했다는 제보가 왔다”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 배후설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어 “빌라왕 사기범이 빌라 사기만 친 게 아니고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런 행각을 했다.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개발, 대장동과 같은 개발 이익을 쟁취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다른 지역’과 ‘개발’ 등은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조작된 서류 등으로 특히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누군가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정황을 직접 들은 바도 있고 목격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각종 언론매체에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남모씨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의 전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인천 ‘전세사기’ 범죄자가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전 인천시의 투자담당자가 개입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하며 “(해당 정치인) 본인의 진실된 소명 없이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서울=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2면

망상지구 사업자 연내 교체 전망

동해이씨티의 동해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권한이 올 연말까지 박탈되고 새로운 사업자로 대체될 전망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1지구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매낙찰로 소유권이 상실되는 시기에 맞춰 우량 기업을 개발사업시행자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은 공모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1군 건설사를 포함한 2~3개 기업과 상당한 수준의 투자협약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동자청은 9,800여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 조성 등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도 전면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 무산된 동해시 망상동 토지 175만㎡를

경매를 통해 확보,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손에 넣었지만 개발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잔여부지(156만2811㎡)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보상 공탁금 400억여원을 법원에 납부하지 못해 잔여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에 실패했다. 더욱이 이미 확보한 땅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 500억여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며 2021년 11월 회사 측이 소유한 231필지 187만3,314㎡가 법원 경매에 넘겨졌다. 경매물량은 망상1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54.5%에 달한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빠르면 5, 6월께 첫 경매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매 절차가 끝나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江原日報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6면

여야 전세사기 대책 입법 공감대

여야 3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이무현기자 trustme@

江原日報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6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당정협의회서 이번주 발의기로 피해자 우선매수권·세금감면도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또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이무현기자 trustme@kwnnews.co.kr

2023년 04월 24일 (월)

경제 07면

江原日報

도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

2019년 0건 → 2020년 4건 → 지난해 11건 집계 총 3억8,200만원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물건 17건 ... 피해 방지대책 시급 지적

강원도 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평택시갑) 의원이 LH로부터 받아 최근 공개한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LH 전세임대는 11세대, 보증금은 총 3억8,200만원에 달했다.

전세임대란 LH가 주택 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미반환 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4건, 단독주택 1건 순이었다. 이는 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미반환사고 4세대, 총 1억9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와 금액 모두 세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도내에서 보증금 미반환 세대는 2019년 한 곳도 없었고 2020년엔 4세대 9,5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원인으로는 집주인의 파산과 개인회생 등 부실한 재정 상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LH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우선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한다. 이러한 보증보험으로 인한 대위변제금액도 지난해 전국적으로 556억 원에 달해 2019년(258억원)에 비

해 두 배로 늘었다.

여기에 도내 전세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다.

조오섭(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이 공개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금 물건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강원지역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주택 물건은 17건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악성임대인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 물건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근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집이 170여 세대로 알려졌지만, 보증내역상 보유 물건은 3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도내에서도 광통전세 피해가 전세임대로 확대되고 전세사기 위험도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사고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동휘기자

2023년 04월 24일 (월)

지역 14면

江原日報

망상1지구 '제2의 대장동' 위기 제동

인천 전세사기꾼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시·시민단체 대규모 아파트 투기 의혹 지속 제기
심규언 동해시장 "사업자 지정 취소·새로 선정해야"

【동해】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가 당초 계획했던 국제복합관광도시가 아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추진, "제2의 대장동이 될 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일명 '건축왕' 남모(62)씨가 추진하던 9,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막아낸 동해시와 동해 범시민비

상대책위원회는 강원도에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업자 선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제복합관광도시=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2013년 동해시 망상동 일원 3.8㎢에 8,269억원을 투입해 호텔, 리조트, 국제학교 등을 갖춘 동북아 관광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국

제복합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망상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추진에 왔다. 그러나 사업 초기 시행자가 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인전을 주무대로 하던 남씨가 대표로 있는 상진종합건설이 2017년 8월 '동해이씨'에 2021년 8월 필리핀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을 설립, 2018년 11월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동해이씨 측은 2021년 8월 필리핀 재계 13위권의 기업과 2025년까지 4년간 1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계획서를 체결, 국제학교와 특성화 대학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복합도시

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동해이씨 측은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관심을 보였다. ■동해시·시민단체 투기 제동=동해시반영화와 상공회의소, 동장협의회 등 10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계획된 망상1지구가 산업·관광시설, 외자 유치 등이 빠진 9,200여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주 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바뀌자 회사와 동자청에 공개설명회 개최 등을 촉구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의 자본금이 70억여원에 불과한 데다 143억8,000만 원에 낙찰받은 1.8㎢ 골프장 부지대금의 지연 입금,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 등을 감안, 6,67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할 능력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동해시 역시 동해이씨사의 투자유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상진종합건설은 직원 9명, 자본금 5억1,000만원, 2019년 매출액은 24억2,000만원에 불과하다며 9,000여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해 회사 측이 신청한 도

시계획 심의에 대해 심의 유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최문순 전 도지사를 만나 재고를 요청했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유보를 요청해 3년간 끌었다"며 "고발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협박도 당했지만 아파트 9,000여세대를 짓는다는 사업 계획은 콘셉트와 맞지 않고 투기라고 생각해 버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지정을 취소, 공모절차를 진행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익기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지역 15면



평창군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 평창군 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2일 평창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 도의원, 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장, 테니스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사회

[포토뉴스] 제21회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군 이장한마음대회



제21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군 이장한마음대회가 21일 인제잔디구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태 지사와 한기호 국회의원 최상기 군수 이춘만 인제군의장 엄윤순 도의원(인제) 등을 비롯한 내외빈들과 참가자들이 개막을 축하하고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3일 (일)
사회

[포토뉴스]미탄면체육대회



제43회 미탄면민체육대회 개회식이 22일 미탄체육공원에서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 도의원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면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탄체육회(회장 홍연택) 주관으로 있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4일 (월)
지역 10면

춘천 서면 박사마을 3년 새 박사 34명 추가 총 198명

백운회 정총 축하패 전달

【춘천】전국에서 손꼽히는 풍수 명당인 서면 박사마을에서 배출한 박사가 3년 새 34명이 늘어 총 198명이 됐다.

춘천 서면 출신 박사들의 모임인 '백운회'는 지난 22일 서춘천농협 본점 대강당에서 송병훈 회장, 한기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박찬흥 도의원, 권희영 춘천시의원 등이 참

석한 가운데 2023년 제24차 백운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박사 졸업 축하식을 가졌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렸고, 2020년부터 배출된 서면 출신 박사학위 취득자 34명에 대한 신입회원 축하패가 전달됐다. 또 한기호 국회의원, 신경호 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특별회원 추대패가 전달했다. 이로써 명예회원도 10명으로 늘어났다.

송병훈 회장은 “단위면적당 박사 수가 이렇게 많은 지역은 서면 박사마을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박사학위를 받은 신입회원들은 나라, 사회에 이어 내가 태어난 고향을 위해 일해 달라”고 말했다. 한기호 국회의원도 축하를 통해 “서면 박사마을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감사드리고 존경스럽다”고 했다. 장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사회

국민건강보험 '찾아가는 정책 세미나' 성황

21일 동해시 평생학습관



국민건강보험 찾아가는 정책 세미나가 21일 동해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려 사회공헌활동 기념으로 원인명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최종수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철규 국회의원, 최종수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장, 원인명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심규언 동해시장. 동해=권태명기자

국민건강보험 찾아가는 정책 세미나가 21일 동해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려 백세시대에 맞는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정보 활용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해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2조2,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의 43%를 차지하는 등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됐다.

'백세시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관리방안'을 주제로 '예방·건강증진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활용방안'을 부제로 진행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와 강원일보사 주관, 동해시와 동해시노인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철규 의원, 심규언 동해시장, 우승룡 강원일보 강릉본부장(상무), 유순욱 도의원, 최명관 동해시의회 부의장, 안성준·민귀희 시의원, 지역 오피니언 리더,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최석순 동해시 보건소장은 '동해시민의 건강행복지킴이',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관리연구센터장은 '예방·건강증진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활용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 송현종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종수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장, 심재희 동해시 행정복지국장, 박성오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부원장, 정익기 강원일보 동해주재 부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에 앞서 사회공헌활동 기념식으로 원인명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이 최종수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60세면 장년도 아니고 청년"이라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뇌질환, 심장질환 등 노인성 질환의 응급의료체계 구비가 중요해 졌다"며 "늘 어르신들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노래처럼 이제 60세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지혜를 모아 활발한 논의와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승룡 강원일보 강릉본부장은 "과거에는 건강 관리가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라는데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며 "강원일보도 심층적인 보도 등을 통해 노인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공단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66세에 불과한 건강수명을 83세인 평균 수명에 가깝게 늘려나가는 것"이라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건강검진을 꼭 받아 튼튼하게 장수하는 계기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오피니언 20면



월요마당

심오섭 강원도의회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불조성 통한 성공 기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될 날이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6일 대회에 사용될 대회의메달 앞면 디자인을 '3000대 1'의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습니다. 브라질 출신 건축가 단테 아키라 우와이의 작품 '빛나는 미래'는 대회 슬로건인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펼쳐질 올림픽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1988 서울 하계 올림픽,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올림픽입니다. 특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청소년 올림픽 최초로 아시아에서 개최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도시의 이름이 아닌 '강원'이라는 지역 명칭을 부여받은 유일한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나고 처음 치르게 될 국

대한민국 세 번째 개최되는

국제 올림픽 대회

'강원'이라는 명칭 부여받은

유일한 올림픽 상징적 의미

정부 차원 지원·협력 지속

대회 성공 개최 위해 하나돼야

제대회인 만큼, '강원도'라는 브랜드가 국제적인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평화의 성지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전국민의 관심과 응원으로 성공 개최했던 것처럼, 그 열정을 되살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를 전 국민의 성원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을 선두로 피겨스케이팅의 전설 김연아, 쇼트트랙 현역 스타 최민

정과 같은 든든한 홍보대사를 위촉한 것에 이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개·폐회식 총감독인 송승환씨를 이번 대회 문화행사 감독·자문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며 대회의 개최를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지원 특위를 구성해 전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에서는 대테러 종합 훈련을 지난 3월 실시했고,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4월 한 달간 대회 개최를 대비해 화재 안전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 관계기관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불협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

력이 지속·확대돼 범국민적인 관심과 응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회로 개최돼야 합니다.

둘째, 민관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마케팅을 유치해 기업 메세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대회로 개최돼야 합니다.

셋째, 강원도민이 솔선수범해 하나 되는 대회가 마련돼야 합니다. 개최 도시를 비롯한 배후 도시들이 모두 함께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친절함을 베풀며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함양하고 문화를 함께 교류하기 위한 대회로 개최되며, 70여 개 국가에서 온 약 2,0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이벤트입니다. 대회의 성공 개최로 '올림픽 유산을 가진 강원도'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4일 (월)
인물동정 21면



◇박기영(춘천·사진 위 왼쪽)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김희철(춘천·사진 위 오른쪽)·양숙희(춘천)도의원은 24일 오전 9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제 21회 춘천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인물동정 10면



김희철 도의원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송암스포츠

타운에서 열리는 춘천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3일 (일)
종합

[동정]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김희철 .양숙희 도의원

박기영(춘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김희철(춘천)도의원.양숙희(춘천) 도의원은 24일 오전 9시 춘천 송암동 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춘천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4월 21일 (금)
사회

[동정]원제용 강원도의의원

원제용 강원도의의원(원주)은 22일 오전 11시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리는 2023 원주치악배 전국 초.중.고 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2면

오늘 도지사·시장·군수 원팀회의 ‘9년 만에 부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함께 모이는 ‘원팀 회의’가 약 9년 만에 부활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첫 개최하는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가 24일 오후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제1회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다. 횡성, 화천, 고성 등 부군수가 대체 참석할 예정이다. 최문순 도정 당시인 지난 2014년 7월에 열렸던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조기 입법 등 도와 각 시·군의 협력 방안과 강특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안 조율과 지역소멸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방안 등도 논의된다.

특히,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당면 현안과 함께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해 각 시·군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한데 모이

는 이날 첫 회의는 도정권력이 12년 만에 교체된 이후, 김진태 지사 체제에서 열리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지사의 친정 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인 의미도 일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4면

전교생 3명 모두 6학년 ...통폐합 위기 내몰린 학교 32곳

**학령인구 감소에 도내 폐교 속출
통폐합·남녀공학 전환 논의 활발
“인구유출 가속화 우려 등 반대”**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평창과 춘천, 고성, 삼척 등 강원도내 곳곳이 통폐합과 남녀공학 전환으로 인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통폐합 중

점 기준(확정학급 편성 기준)에 부합하는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32곳이다. 해당 학교들은 최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폐합에 대한 찬반의사를 수렴했다.

전교생이 7명인 평창 A중학교는 최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창중과의 통폐합 찬반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반대하는 학부모가 더 많아 해당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삼척 B학교와

고성 C학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통폐합 논의를 가졌으나 지역 내 학생이 자연소멸하기 전까지는 폐교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통학거리가 멀어지고, 지역내 학교가 사라질 경우 인구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면서 결국 문을 닫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다. 전교생이 3명인 인제 D초등학교는 재학생 전원

이 6학년이다. 이들이 졸업하면 학교에 남은 학생이 없고, 지역내 취학예정 학생도 없어 갑자기 전학생이라도 오지 않는 이상 내년에 문을 닫는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아직 학부모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중이나 입학 예정 학생도 없고, 남은 학생도 없어 이대로 가면 자연스레 폐교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학교 수를 줄이기 위한 읍·면 단위 학교를 함께 유치해 있는 남춘천중과 남

춘천여자중은 최근 남녀공학 전환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두 학교 모두 반대의견이 많아 공학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남춘천여중관계자는 “두 학교를 제외하면 춘천 내 중학교가 전부 공학으로 전환돼 단설 학교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수요자가 원해야만 남녀공학 전환 등이 가능 하다”라고 했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종합 04면

강원도·시·군 주요사업 ‘정부 국도·국지도 건설’ 반영 총력

“경제성·정책성 등 보완 예정”

강원도와 도내 각 시·군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6~2030) 계획’의 주요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에 대해 오는 6월 현지조사를 거쳐, 8월 후보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3월 경제성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추려지면 같은해 5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조사가 진행, 이듬해 12월 최종 확정·고시된다.

강원도와 도내 17개 시·군(양양군 제외)은 최근 원주국토관리청에 41개의 사업(국도 29건·국지도 12건)을 제출했다. 이들 사업 규모는 5000억원(거리 기준단가) 내외로 추산됐다.

주요 사업은 △원주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서부구간(혁신도시~지정면 기업도시·5.23km) △삼척시 국도 7호선(삼척·동해) 대체 우회도로 △춘천시 안보리~용산리 국도 대체 우회도

로·춘천~홍천 국도 5호선 도로 확장 등이다. 특히도는 강원도 신청사와 고은리 행정복합도시를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정족리~만천리·8.3km)가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며 “해당 지표들을 보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형 duckbro@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4월 24일 (월)

인물 21면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21일 열린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 설명회에서 강원도의 입지여건 및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道 서울서 데이터센터 기업유치설명회

강원도, 한국전력공사 강원 본부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국내 데이터센터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해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데이터센터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강원 권역별 입지여건 및 유치 계획, 한전 강원본부는 강원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 현황 및 제도 개선 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

의 핵심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화재·지진 등 재난에 취약,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건설에 대한 부담, 계통 혼잡 등이 우려된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한전과 탄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기업에게 데이터센터 최적 입지인 강원도에 입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

東 亞 日 報

2023년 04월 24일 (월)

충청/강원 16A면

원주 시민단체들, 아카데미극장 철거 강행에 반발

시정토론 행정심판 청구 예정

강원 원주시가 지역의 유일한 단관극장인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원주시가 조례에 따른 시정토론청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아카데미와 친구들'(아친)은 24일 원주시청 앞에서 철거 반대 릴레이 시위와 이해운 작가와 함께하는 '아트 퍼포먼스'를 펼친다. 아친은 앞서 17일 원주시의회에 전달하기 위한 보존지지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고, 19일부터 원주시의회 앞에서 철거 반대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원주 고유의 근대문화자산인 아카데미극장이 시민의 자발적 노력과 원주시의 호응으로 매입됐는데 왜 이제 와서 1년 만에 철거돼야 하는지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며 "근대문화유산을 아끼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행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강수 원주시장은 취임 이후 아카데미극장 보존사업 공개여론조사 약속을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로

청구된 시정정책토론마저 과도한 기준을 제시하며 거부했다"며 "원 시장은 일방적인 철거 계획을 취소하고 시민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963년 문을 연 아카데미극장은 스크린을 1개만 갖춘 단관극장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복합영화관이 잇따라 생기면서 2006년 아카데미극장을 포함한 단관극장들이 문을 닫았다. 다른 극장들은 모두 철거됐지만 아카데미극장은 건물 소유주가 창고처럼 사용해 헐리지 않았다.

시민들 사이에서 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고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21년 1월 보존추진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보존 캠페인이 본격화됐다. 이에 원주시가 호응하면서 시는 아카데미극장 복원을 위해 지난해 1월 시비 32억 원을 들여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예산 추가 투입 문제로 인해 복원은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결국 원주시는 11일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야외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시장은 "아카데미극장을 복원하면 사업비 및 운영비 명목의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내부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江原日報

2023년 04월 24일 (월)

지역 16면

철원~포천 고속도 조기 건설 요구 확산

군 오늘 서명부 道에 전달
주민·관광객 11만명 참여

【철원】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종 군수와 박기준(철원군의장)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 건설 범국민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4일 오후 3시 도청에서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 건설 범국민 서명부’를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철원지역 정치권과 사회

단체는 지난해 8월 철원~포천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조직,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11만3,00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인근 지자체인 경기 포천지역에서도 대책위가 조직돼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와 군은 지난 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요청했다.

박기준 위원장은 “철원~포천 고속도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꼭 이행돼야 한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강원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날 서명부 전달식에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철원 한탄강주상절리길의 기초환경시설과 올 10월께 준공되는 한탄강 햇불전망대 일대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대호기자 mantough@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사회 05면

‘화마 도사린 강원’ 강릉산불 이후 발생한 화재만 49건

<4월 11일>

영서 중심 건조주의보 발효
‘부주의’ 원인 화재 28건 달해
“화재 예방 각별히 유의해야”

23일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다시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강원도내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강릉 산불 이후 강원도내 발생한 화재가 이미 49건이고 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8건에 달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5일 강원도 전역에 내린 비로 건조특보가 잠시 해제됐었지만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져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다시 내려지면서 화재는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22일 철원과 화천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고 23일 추가로 원주·춘천·홍천·횡성 등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를 내렸다. 23일 오전 9시 기준 화천(광덕

산)은 실효습도가 27%, 원주 42%, 춘천 48% 등 영서지역 대부분이 실효습도가 50%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도 속출하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42분쯤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의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헬기 2대를 포함해 장비 20대와 인력 67명을 동원, 산불 진화에 나서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완전히 불을 꺾었다. 이 불로 0.2ha의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며 입산자의 담뱃불로 인한 발화로 소방·산림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 22일 낮 12시 26분쯤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의 한 임야에서는 밭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 시초류 0.35ha가 불에 탔다. 지난 16일에는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일대의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 0.01ha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꺼졌다.

올 봄의 경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

면서 임야 화재(산불·들불)가 속출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75건이다. 그 중 3월~4월 중 발생한 화

재가 56건으로 전체의 74.7%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월~4월 22일)에 발생한 51건의 임야화재에 비해 소폭 상승한 규모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을 것으로 예상

되면서 메마른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강원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영서 북부와 그 외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사설/칼럼 21면

규제 완화 올인 빈손 우려

-강원도, 특행기관 이관 및 재정 구체성과 내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도민 목소리가 거센 것과 달리 중앙부처 대응은 미지근합니다. 강원도내 곳곳에서 6월 11일 출범 전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그대로 통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에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지 않도록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반 사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농지와 산림은 물론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 규제완화 요구에 난색을 보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슈를 '규제 완화' '산업 특례'에 올린 해운 강원도의 일방적인 전략에 자칫 빈손으로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4대 규제 혁파에 골몰해 온 경향이 컸습니다. 오히려 경제 활성화와 지역 번영의 계기를 가져오는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을 18개 시군별로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규제를 완화해 주면 국비 지원 없이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분담책 및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끌어내는 데도 취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대목은 더 있습니다. 2006

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하면서 행정, 재정, 조직 및 인사 부문에서 상당한 자치권적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 7곳이 이관됨으로써 제주 관내에서 집행되는 중앙정부 사무 전반을 관장한 결과 행정 수요와 공급 양측 모두 효율적인 업무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치사무를 확대하고 지역 정책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업무가 추진된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에 비해 강원도는 당초부터 원주 국토관리청, 원주환경청 등 관내 10개소의 특행기관을 넘겨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커 핵심기능만 우선 받고 기관 이관은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강원도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폐광지 등에서는 관광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한 4월 입법은 건너간 데다가 중앙정부와 팽팽한 대립으로는 빈손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시간으로만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24일 (월)

사설/칼럼 21면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가 우선

-마트 의무휴업 상생 효과 없어, 변화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전통시장의 유통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생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반면 소규모 유통업체 활성화 위해 도입한 의무휴업으로 온라인 쇼핑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를 통한 반사이익보다는, 지역 시장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무휴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4%는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습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체로는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습니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 순이었습니다. 규제에 의한 수혜를 전통시장보다 타 유통업체가 더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점유율도 21.7%에서 12.8%로 줄었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제도가 기대를 역행하는 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규제 해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시장 충격을 고려해 완화와 폐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업계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도내 전통시장도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객들은 대형마트 휴업일이라고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시장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판매 물품을 마트와 차별화하고, 지역마다 시장을 특화해야 합니다. 먹을거리 코너 등을 만들어 관광 루트로 조성하는 한편, 역사가 있는 명품 가게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변화하는 소비 경향에 적응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4일 (월)

사설/칼럼 19면

아파트 외지인 매입 급감, 투기 잡고 시장 살려야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강원도 내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올 2월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 중 주소지가 타 지역인 외지인 매입 건수는 57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매매량 2,485건 중 22.9%에 해당한다. 도내 아파트의 외지인 매입 건수는 지난해 8월만 해도 879건으로 월별 전체 거래 2,557건 중 34.3%에 달했다. 같은 기간 거주지가 강원도인 매수자의 매입 비중은 65.6%에서 77.0%로 대폭 증가했다. 외지인 매입의 경우 상당수가 투자 수요인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강원도 아파트에 대한 매력력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줄고 도내 아파트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만큼 건강한 아파트 시장 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내 아파트 거래 시장의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3월24일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2,594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거래량 5,021건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거래가 줄면서 가격 내림 폭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9% 내리면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부터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1분기에만 누계 1.46% 떨어졌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도 문제지만 거래가 줄어도 큰일인 셈이다. 피해를 보는 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도내 실수요자들이다. 당장 이사를 왔지만 기존의 아파트가 안 팔려 속이 타 들어갈 수 있다. 집이 팔리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더구나 도내의 경우 신규 아파트 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그간 활기를 띠었던 도내 부동산 시장이다. 하지만 여름철 비수기와 맞물려 거래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올 하반기 부동산 매매 시장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도내 자금이 수도권을 향하면서 거래절벽 심화, 미분양 증가, 집값 폭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도내 주택 시장을 찾던 외지인마저 빠져나간다면 하반기 도내 주택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불경기과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 속에 집값 급등뿐 아니라 급락도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은 최대한 살리되 '투기'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24일 (월)

사설/칼럼 19면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하면 끝인가

2019년 4월에 발생한 고성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87억원 배상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지난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59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2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에서 산정한 분야별 손해사정액의 60%인 8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재민들은 총 26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원만을 인용했다.

이재민들은 왜 자신들이 40%를 책임져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1심 판결이 내려 지는데까지 4년이 걸렸다. 이러는 사이 이재민

들의 삶은 뿌리째 흔들렸다. 국가는 어떤 역할도 못 했다.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갈수록 빈번해지며 대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석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380건으로 최근 10년(2013~2022년) 동기 평균(247.5건)보다 53.5%나 많다. 강원도 산불 피해는 더욱 처참하다.

지난해 3월 일어난 산불은 강릉 옥계와 동해·삼척을 초토화시켰다. 2019년 고성·속초·강릉·인제 일대를 덮친 화마,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와 보물 479호 동종(銅鍾)은 흔적도 없이 녹아 내렸다. 2000년 장장 191 시간 동안 불타며 강릉·동해·삼척·고성 산림 2만3,794ha가 잿더미로 변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으나 대책

은 수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이 지원된다. 또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가 지급된다. 세제·금융·의료상 혜택도 보게 된다. 이러한 혜택들이 집이 송두리째 날아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 특별재난지역의 혜택을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산불이 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 지원을 검토하는 식의 발표는 거의 정형화돼 있다.

그래서는 산불 대책이 불과 몇 년 앞을 내다

법원, 고성 산불 이재민 87억 배상 판결

이재민, 청구금액 33%만 인정받아 '반발'

정부·정치권, 실질적 도움 줄 제도 마련을

보고 세워지기는커녕 산불 대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도 어렵다. 산불 대책과 주민 간의 간격을 더욱 벌려 놓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산불은 재난이 아니겠지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재정 부족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 올해 산 규모는 약 639조원이다. 산불 피해지역을 충분히 배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다. 선심성 정책을 줄이면 산불 피해지역을 나랏돈으로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가 있느냐다.